

## < 학 습 지 도 안 >

**2018 학년도 가을학기(4 주차) 10 월 6 일 백두반 남 일 교장**

단원 명 (과)	백두반/졸업반 수업3주차			
	문법-관용표현-읽기와 쓰기 및 발표하기			
교재	알쏭달쏭 헛갈리는 맞춤법, 명심보감(한-영), 한국한자검정 6, 7급			
	한국문화역사 100선•SAT한국어 문제(어휘력 & 읽기 강화)•시사관련 자료			
본시 지도 목표	말하기	지난 주 과제물(읽기 자료) 점검 및 토론		
	듣기	팀별로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토론하기		
	읽기	漢字 ‘가’(家)를 통한 우리 문화 및 역사 쉼터		
	쓰기/숙제	한자 7급(2) 및 한영-영한 번역 과제		
	기타 활동	모든 활동은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발표로 마무리 함		
지도 내용		시간	평 가	
1교시	1교시에 보조교사 시간 (지난 주에 이어 같은 학급)		1시간	1교시에 백두반 학부모 회의
	3개 팀으로 나눠 지정한 반에서 보조			
	보조교사 일지를 제출할 것			
	학급 반장은 보조교사 시간 기록 (9월 반장)			
	휴식 시간			
2교시	한자(漢字) ‘간(間)’에 대한 부분 읽기, 단어 및 어휘		15분	10월 백두반 반장 이유진
	PPT 자료를 이용한 역사적/문화적 의미의 간(間)		15분	
	조선 시대의 간식(間食)에 대해 알아보기		10분	
	토론하기			
3교시	SAT한국어 어휘력 부문(3)			
	대왕 세종을 만든 사람들 (읽기와 이해하기)			
	한자 7급 No.4			
	마무리 및 과제물 배부			

### 제안 및 필요사항/Suggestion & Request

다음 주 공부할 내용: 6가지 한글/영문 에세이 제출: 예)세종대왕 한글

4주차: 漢字 ‘간’(間)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문화 및 역사 쉼터

**National Foundation Day(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572돌 기념 작문 계획**

5주차: 독도의 날 (10월 25일)

백두반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 기한

\* 백두반 기본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기한 (작문은 Letter size 에 2 페이지 정도)

- 1)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10 월 20 일까지 제출)
- 2)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와 음악 (11 월 17 일까지 제출)
- 3) 내가 기억하는 전래동화 얘기 (12 월 15 일까지 제출)
- 4) 남한과 북한의 현재,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월 12 일까지 제출)
- 5) ‘기후변화’에 대해 나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 (2 월 23 일까지 제출)
- 6)
- 7) 졸업 Speech (4 월 20 일까지 제출)



**(지난 주 10월 6일) 출석/숙제/보조교사 시간 및 Point 합계**

이름	김준영	이상재	이유진	최정완	허 솔	결과
출석	0	0	0	0	0	
출석(P)	3	4	4	3	4	
숙제	1	1	1	1	1	
숙제(P)	3	4	4	3	4	
TA	1	1	1.5	1	1	
Project	5	5	6	5	6	
TA(합)	2	4	3.5	2	3	

* 백두반 '19 졸업반의 보조교사 봉사 계획표/2018 가을 학기				
	학생 이름	보조교사 시간	학급 이름	교실 번호
1	허은빈	10:30~11:20	봄반	RM 105
2	최정완	10:30~11:20	여름반	RM 107
3	이유진	10:30~11:20	가을 1 반	RM 142 OW
4	이상재	10:30~11:20	가을 2 반	RM 152 OW
5	김준영	10:30~11:20	겨울반	RM 143 OW

* 백두반 반장(Class Captain) 리스트			
Month	NAME	Month	NAME
2018 년 9 월	이상재	2-3 월	이상재
10 월	이유진	4 월	이유진
11 월	허솔	5 월	허솔
12 월	김준영	6 월	김준영
2019 년 1~2 월	최정완	6 월	최정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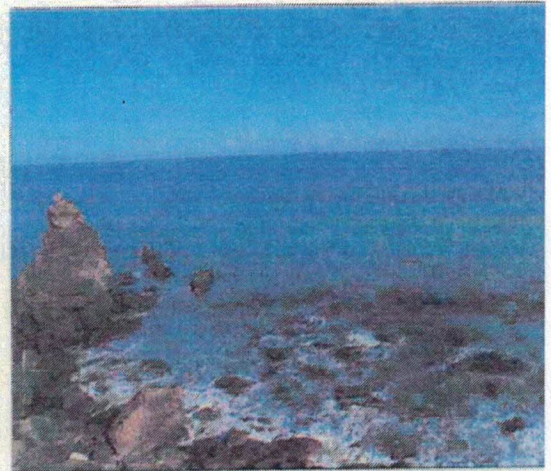
* 백두반 졸업 사진 촬영 일정 및 졸업생 발표연습 *			
5 월 4 일 (1 차)			
5 월 12 일 (2 차)			
졸업식 발표연습	4 월 20 일		
	5 월 4 일		
	5 월 12 일		
	5 월 19 일		



007

## 다른 나라 지도에는 동해가 왜 일본해로 되어 있을까? 동해

조선 시대에는 동해를 가리켜 '조선해' 또는 '창해'라고 했어요. 그러다 8·15광복 후에는 '동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많은 외국의 지도에도 옛날에는 '동해', '동방해', '한국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옛 지도에도 '조선해'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요.



▲ 맑고 아름다운 동해의 풍경.



### ★ 영해가 뭐예요?

자기 나라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가리켜 '영해'(領海)라고 해요. 즉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가 그 나라의 땅인 셈이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적으로는 영해이지만 어느 나라 배든 통과가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1910년 후에 나온 일본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든 지도에도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 후 동해라는 이름 대신 일본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해방 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죠.

“동해라고 하든 일본해라고 하든 어차피 똑같은 바다잖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는 많아요.

우선 지도에 표기되는 이름은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해양 영역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만약 동해를 일본해라고 한다면 일본 배가 자기 마음대로 동해를 드나들 수 있지 않겠어요?

동해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꼭 우리의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답니다.

---

(1) 위 동해와 관련된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발표해 보세요.



017

거북선에도 화장실이 있었을까?

## 거북선

1592년 임진년 4월, 이순신 장군은 왜구의 침략을 미리 예상하고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조선 태종 때부터 '귀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우연히 귀선의 설계도를 본 이순신 장군은 나대용에게 거북선의 설계를 맡겼지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 거북선의 뱃머리에는 용 머리를 달았고, 꼬리는 거북 꼬리 모양이었다.

:: 거북선 위에는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무판 위에 철판을 덮고 수백 개의 철침을 박아 놓았다.

:: 거북선 위에는 두 개의 돛을 달 수 있었다.



▲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배 위에 박아 놓은 철침.

:: 거북선의 좌우에는 16~24개의 노가 있었다.

:: 거북선의 옆과 앞뒤에는 포가 있어 사방으로 대포를 쏠 수 있었다.

거북선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병사들은 교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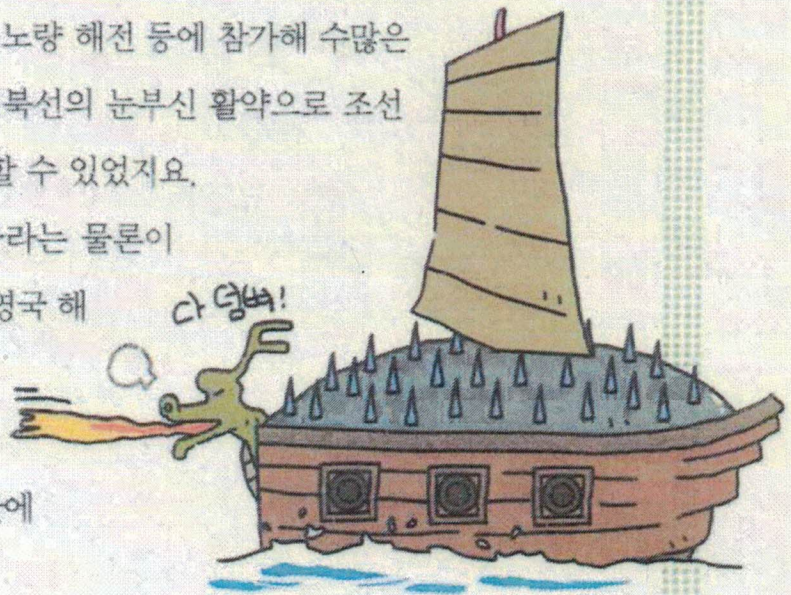
▲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선 시대 거북선 모형.

잠을 잤어요. 또한 거북선에는  
화장실도 있었어요. 다시 만들어  
놓은 거북선 모형을 보면 뚱이  
바다로 바로 ‘퐁당!’ 빠지게 되  
어 있는 화장실을 볼 수 있어요.

거북선은 먼 곳을 항해할 때는  
돛을 사용했는데, 돛을 자유자재  
로 뉘었다 세웠다 할 수 있었어  
요. 또한 좌우에 여러 개의 노가  
있어 전투가 벌어지면 빠르게 적  
진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지요.

거북선은 사천 해전에서 처음 전투에 참가했어요. 이후 거북선  
은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해전, 노량 해전 등에 참가해 수많은  
왜구의 함대를 무찔렀어요. 거북선의 눈부신 활약으로 조선  
수군은 왜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지요.

현재 거북선 모형은 우리나라는 물론이  
고, 미국 워싱턴 전쟁 기념관, 영국 해  
사 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중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각지 역사 전쟁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 세종대왕

1397년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세종대왕의 이름은 '도'예요. 1418년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또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지요.

세종대왕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이러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일



일이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1450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종대왕은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지요.

### ★ 훈민정음과 한글은 어떻게 다를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를 합해 모두 24자예요. 반면에 훈민정음은 자음 17자에 모음 11자로, 모두 28자로 이루어져 있지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자음의 〇(옛 이음), ㅍ(여린 히읗), △(반시옷) 등의 세 자와 모음의 .(아래 아)가 빠져 28글자가 24자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훈민정음 창제는 빼놓을 수 없어요.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노력의 노력 끝에 자음과 모음을 합쳐 28자로 된 새로운 글자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 글자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에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양반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최만리 같은 인물은 우리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어버이 나라인 중국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여 반대했어요.

세종대왕은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이들을 멀리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선은 중국과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요.

또한 세종대왕은 학문을 깊이 사랑하여 집현전에 우수한 젊은 학자들로 하여금 많은 책을 편찬하도록 했어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등이 바로 세종대왕 시절에 나온 책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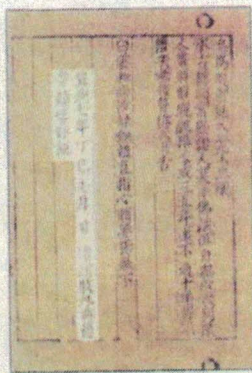
세종대왕은 농사짓는 백성들을 위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힘을 쏟았어요. 장영실, 이천 등 젊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 시간을 재는 '앙부일구(해시계)'와 '자격루(물시계)' 등을 만들게 했습니다.





직지심경이 왜 프랑스의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을까?

## 직지심체요절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킨 10대 발명품 중의 하나로 꼽히는 《직지심경》도 그 중 하나이지요. 1377년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경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지만

정식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지요.

《직지심경》은 상하 두 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직지심경》은 현재 전하고 있는 금속활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서양 최초 금속 활자인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무려 70여 년이 나 앞선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책은 서양에서도 세계적인 보물로 손꼽히고 있지요.

그런데 《직지심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 있었어요. 바로 《상정고금예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고종



### ★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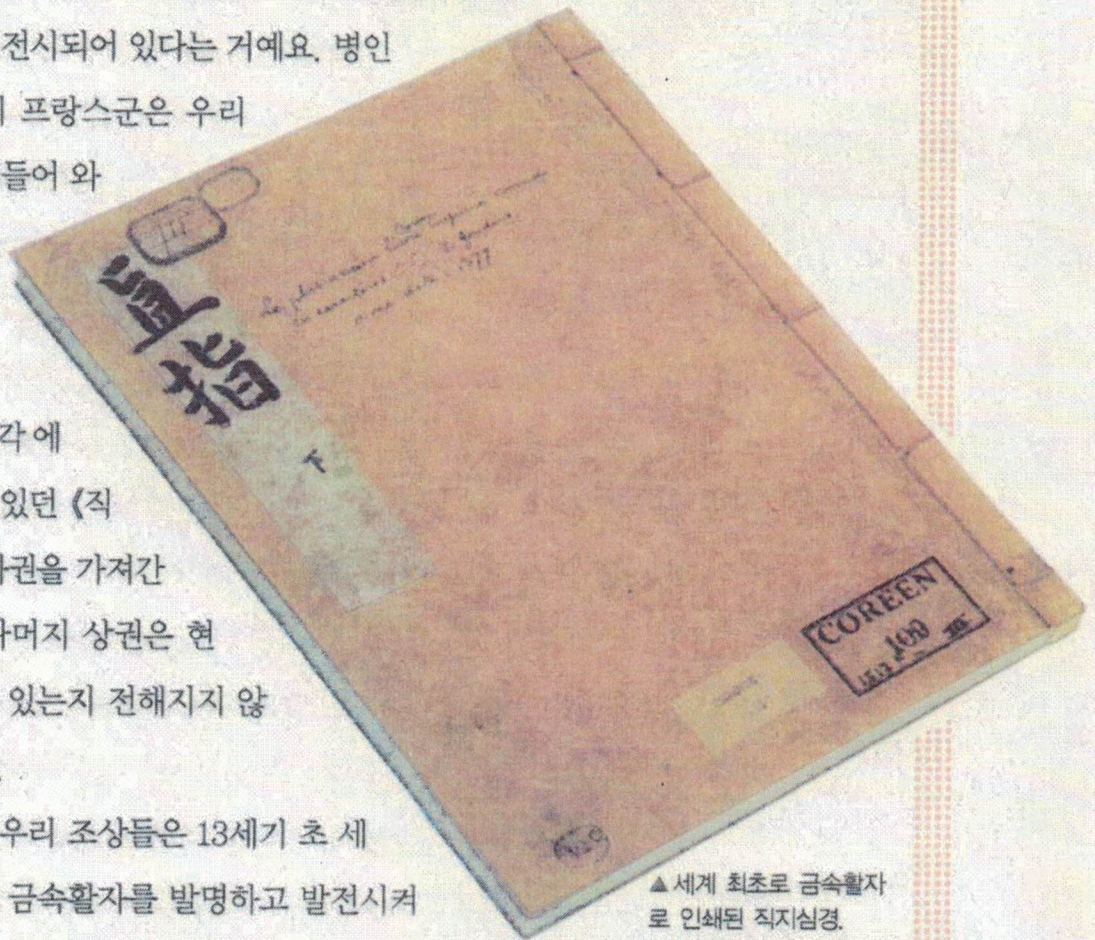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하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두루마리 종이뭉치가 발견됐어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에요. 다라니경은 너비 8센티미터, 길이 52센티미터 정도의 종이 열두 장을 이어 붙여 두루마리로 둥글게 말았는데 총 길이는 630센티미터 정도랍니다.



21년인 1234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됐어요. 이것은 서양의 금속 활자 발명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것이지요. 그러나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직지심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직지심경》이 현재 프랑스의 국립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우리 나라를 쳐들어 와 강화도를 점령했어요. 이때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직지심경》 하권을 가져간 것이죠. 나머지 상권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13세기 초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발전시켜 놀라운 인쇄 문화를 꽃피웠답니다.



▲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경.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백두반 한자(漢字) 숙제 \*가을 학기 5주(10월 13일)

13. 년(年) 해년 年: 干(방패 간, 3 획) 총 6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nián, nìng [영어] year; new-years; person's age [일본어] ネン  
 年年年年年年

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14. 념(念) 생각 념 念: 心(마음 심, 4 획) 총 8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niàn [영어] think of, recall, study [일본어] ネン

念念念念念念念念念念  
 念念念念念念念念念念

15. 다(多) 많을 다 多: 夕(저녁 석, 3 획) 총 6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duō [영어] much, many; more than, over [일본어] タ  
 多多多多多多

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

16. 단(單) 홀 단 單: 口(입 구, 9 획) 총 12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dān, dān,  
 chán, shàn, chǎn, dàn, zhàn, tán [영어] single, individual, only; lone [일본어] タン

單單單單單單單單

17. 답(答) 대답 답 答: 竹(대 죽, 6 획) 총 12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dá, dā [영어] answer, reply; return; assent [일본어] トウ  
 答答答答答答答答答答

答答答答答答答答答答



## Understanding New Coinage 1

### helper



#### Meaning helper

the person who gives help to others

#### Explanation

The term '도우미' began to be used since Daejeon Expo in 1993 for calling various volunteers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event. Then, it became a general term for calling volunteers or helpers in a specific field whether they are paid or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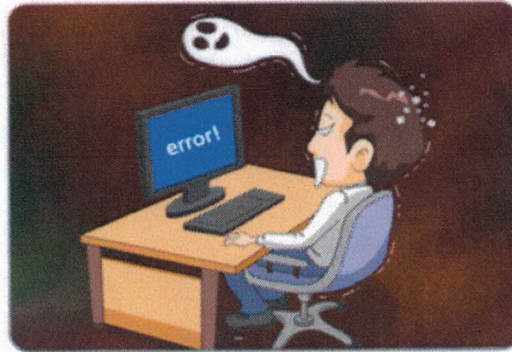
There is a university in Korea running '한국어 도우미 제도 (Korean language helper system)' which introduces native Korean students to foreign students who came to learn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helpers help foreign students to get used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aster through periodic meetings and events.

#### Additional Explanation

We call the people who help with housework such as cleaning, washing and cooking for money '가사도우미 (housework helper)', and the people who help with planning and processing a wedding '결혼도우미 (wedding helper or wedding planner)'. We also call a guide dog which guides blind people '도우미견 (helper dog)'.



## Mental collapse



### Meaning Mental collapse


Mental collapse


### Explanation


'멘붕' is the shortened word of '멘탈 붕괴' which is the combination of English word '멘탈 (mental)' which means '정신 (spirit)' and Chinese word '붕괴' which means '무너지다 (collapse)', and it is the word which was frequently used on line such as in the internet communities and on-line games in the 2000s. Lately, we use this word widely in everyday life, and it is used in a situation, as the same meaning as it is, when something is shocking or embarrassing enough to destroy our mentality. We use this expression informally between close friends in everyday life, however, not in the formal situation.

### Additional Explanation

Just like the other nouns, it may be used with predicates or '-이다' such as in '멘붕을 겪다', '멘붕이 오다', and it is also used as the expression which modifies the shocking objects such as in '멘붕 상황, 멘붕 사건, 멘붕 노래'.

 What happened?

 I am **mentally collapsed** because I have lost all the materials of my work on my computer.

 Pull yourself together! You should have saved the important materials beforehand.

### Vocabulary

work      completely      lose      Pull oneself together      beforehand      materials  
save



## 명심보감•明心寶鑑

### \* 한글-영어로 읽고 배우는 명심보감(1회-복습) \*

<효행편> 자왈, 부모재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자왈 부모재 불원유 유필유방  
子曰, 父母在어시든 不遠遊하며 遊必有方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멀리 떠나지 말 것이며,  
떠나되 반드시 방향을 알려야 한다.

As long as one's parents are alive, one should not venture far away from them and when venturing out one should surely let one's parents know where one is going.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노(魯)나라 사람.

춘추(春秋) 말기의 사상가, 정치가, 교육가, 유가(儒家)의 창시자.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仁)이다. 논어(論語)는 공자의 언행을 적어놓은 책으로서 공자의 학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계실 때에는 멀리가지 말며....



떠나되 반드시 방향을 알려야 한다.



2018년 10월 13~27일

## 백두반 읽기 & 생각 나누기 시간

소나기 - 황순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曾孫女)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거나 한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뻥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핵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 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발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발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발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지 조약돌을 내려 다 보았다. 물기가 겹쳐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 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 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를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족으면 좋겠다. 이 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찹찹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 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애."

못 들은 체했다. 독 위로 올라섰다.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 마장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벌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있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며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논의 독수리, 저논의 독수리, 저논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 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 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 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우밭으로 들어가, 무우 두 밀을 뽑아 왔다.

아직 밀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썹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이 눈에 다가왔다.

"야아!"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 그런데, 이 양산  
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이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산마루계로 올라갔다.

맛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할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칙덩굴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칙덩굴을 그러쥐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년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뿜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핵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년은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달음으로 칙덩굴 있는 데로 내려가, 꽃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온다. 그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 보자."

누렁송아지였다. 아직 코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 쥐고 등을 굽어 주는 체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경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 나의 큰 꽃뭉침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너희, 예서 뭇들 하느냐?"

농부(農夫)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 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 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앞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 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 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아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 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 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 놓은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의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섰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수밭 소리가 똑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수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히었다. 걸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 몰래 5학년 여자 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소년은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 쪽 개울둑에 소녀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소년은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 동안 앓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 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인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 ..참, 그 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 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년은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 냈다. 그 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업힌 일이 있지? 그 때, 네 등에서 웁은 물이다."

소년은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땀다. 널 제사 지내려고 ... .."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년은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曾祖)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년은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저,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있다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년은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孫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년은 혼잣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렇건만, 소년은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이날 밤, 소년은 몰래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 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 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 저라, 많이 떨어저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 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 달이 지우는 그늘만 골라 디뎠다. 그들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깎다가는 움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 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개울가로 나와 달라는 말을 못해 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것, 바보 같은것.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도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갈갈'하고 알 날 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찢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 보았다.

"저, 서당골 윤 초시 댁에 가신다. 제삿상에라도 놓으시라고... .."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년은 공연히 열적어,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가, 쇠잔등을 한 번 철썩 갈겼다. 쇠파리라도 잡는 체.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 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갯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 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허, 참 세상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 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쪽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曾孫)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 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써 봤다더군.

지금 갈아서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1953)



2018. 10. 13. 백두반 이름: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보고 대화할 내용을 마련해 보자.

1.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

2. 이야기를 읽고 알고 싶은 것(궁금한 것)\_\_\_



## 1. 단어 학습

<보기>

장날, 상전, 소작, 소나기, 개가, 소 꿀, 전학, 쇠죽, 주변, 게발새발, 운동회, 천생연분, 풍년, 망조, 가을걷이, 꿈수, 추곡수매, 종가 집, 대대손손, 약초

	갑자기 내리는 비
	남편이 없는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하는 것
	소가 먹는 풀
	소가 먹는 죽
	반 학생들이 한 주 쉼 돌아가며 학교와 교실 청소를 하는 일
	학교를 옮김
	약으로 쓰이는 풀
	글씨가 엉망인 상태, 표준어는 괴발개발 이나 많이 잘 못 사용 됨
	남자와 여자가 잘 어울린다는 뜻
	학생들과 부모님이 한데 모여 운동 및 게임을 하는 학교 행사
	한 해 농사가 잘 된 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음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5일 마다 시장이 열리는 날
	가을에 농작물들을 거두는 일
	가을에 얻은 농작물을 파는 것
	얇은 껍나 속임수
	망할 징조
	오랫동안 집안에 전해져 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집



2. 다음 보기는 ‘소나기’중 등장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물건이나 또는 놀이, 일들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소나기’를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키, 성묘, 돼지오줌보, 지게, 다듬이질, 징검다리, 오쟁이(오재미),  
공굴리기, 우물, 조약돌, 외양간, 허수아비, 원두막, 송진, 탈곡기

1. 이불이나 옷감에 입힌 풀(starch)이 너무 뽀뽀하지 않게 방망이로 두드려 펴는 일:
2. 공이 없던 시대에 돼지의 방광에 공기를 넣어 공으로 사용:
3. 조상의 묘(무덤)를 찾아 절을 하고 묘를 돌보는 예식:
4. 밭을 지키기 위해 지은 높직한 막:
5. 논이나 밭에 새나 짐승을 막기 위해 세워 놓는 사람처럼 생긴 물건:
6. 소나무에서 나는 끈끈한 액체, 소년이 소녀의 상처에 발라 줌:
7. 곡식의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쓰는 물건, 소년의 동생이 오줌을 싸고 소금을 받으러 가기 위해 머리에 쓴 물건:
8. 추수한 벼에서 알곡을 훑을 때 쓰는 기구:
9. 소나 말을 기르는 곳:
10.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기구:
11. 개천이나 냇가에 돌덩이를 드문드문 놓아 만들 다리:
12. 지푸라기나 작은 천 속에 곡물이나 굵은 모래 등을 넣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운동회 장면에서 아이들이 큰 공을 터뜨리기 위해 던진 물건:
13. 땅을 파서 물을 모이게(괴게)한 설비, 물을 뜨던 곳:
14. 학교 운동회 때 많이 하는 경기로 여러 명이 큰 공을 굴리는 경주:
15. 작고 동글동글한 돌, 소녀가 소년에게 던졌던 하얀 돌:



3 우리말 속담의 활용을 읽어 보고 알맞은 뜻을 서로 연결해 보세요.

개천에서 용 나다 •

▪ 나이 들어 시중들 사람을 만나 고생한다는 뜻

늪어 된 서방 만나다 •

▪ 어렵게 돈을 벌어 멋지게 쓴다는 뜻

개처럼 벌어 정승 같이 쓰다 •

▪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난다는 뜻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

▪ 큰 일에 한 번 놀란 일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비슷한 작은 일에도 놀란다는 뜻

산 입에 거미줄 치랴 •

▪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대하기 힘들다는 뜻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술뚜껑 보고 놀란다 •

▪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방법은 있기  
마련이라는 뜻